

대학생들 정보윤리 의식과 과제표절 실태 분석

Exploring the Information Ethics and Plagiarism of University Students

오은주

경일대학교

Oh eun-joo

Kyungi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정보윤리의식과 과제표절 실태와 과제표절 실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문을 실시하였고 설문결과 대학생들의 정보윤리의식 수준은 매우 높았으나 응답자의 77%가 과제표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표절의 이유는 과제의 양이 너무 많고 시간이 없거나 과제에 대한 피드백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I. 서론

현대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홍수시대를 이루고 있으며,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양의 정보가 생산되고 동시에 소멸되고 있다. 현대의 정보는 디지털 형태로 되어 있어 획득하거나 변형하여 가공하기 용이하며, 특정한 정보는 개인이나 조직의 지적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늘 도용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정보를 신속하고 빠르게 생산하고 배포하는 역할을 했지만, 해킹, 바이러스 유포, 개인정보유출, 불법복제, 저작권, 인터넷 중독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김석철, 한준탁, 2013; 이남수, 2013).

본 연구에서는 대학 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탈 행위인 과제표절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학생들의 정보윤리의식 정도를 측정하여 대학생들의 정보윤리 행태를 분석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대학 교육과정에서 실시할 수 있는 정보윤리교육의 내용과 효과적인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가 제시되었다.

첫째, 대학생들의 정보윤리의식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대학생들은 과제표절 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과제표절을 하고 있다면 과제표절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는 서울에 있는 H대학 학부생 165명과 경상

북도에 소재하는 K대학교 학부생 193명으로 총 358명의 대학생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H대학 학생들에게는 과제표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K대학교 학생들에게는 정보윤리의식 측정 설문을 실시하였다.

2. 연구 도구

과제표절 설문지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자가 개발하여 3인의 정보학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았다. 대학생 정보윤리의식측정 설문지는 이남수(2013)가 개발한 설문지를 저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7점 척도로 총 26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적재산권 인식, 정보의 정확성 인식, 개인비밀 인식, 정보의 접근성 인식, 행동 의도의 정도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Cronbach의 알파)는 0.93이었다.

3. 결과 분석

정보윤리의식 측정 설문지와 과제표절 설문지는 SPSS를 사용하여 영역 및 문항별로 평균 분석 및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학년 혹은 성별로 응답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분석과 LSD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정보윤리의식 분석 결과

정보윤리의식 측정 설문은 7점 척도로 5개 영역의 총 26문항으로 이루어 졌으며, 1점이 정보윤리의식이 가장

높고 7점이 정보윤리의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개발되었으나 결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료를 역코딩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측정 결과의 분석은 각 문항의 빈도분석을 통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고 5개의 영역을 참여자의 인적사항 즉, 학년, 성별, 인터넷 윤리교육 경험, 1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을 독립변수로 하여 응답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각 영역별 평균이 5점 이상으로 정보윤리의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역별 응답을 연구 참여자의 성별, 학년, 인터넷 교육의 유무 등으로 분산 분석해 보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각 문항별로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2번 문항(영화 무료 다운 후 감상)은 성별로 차이가 있었고, 10번 문항(개발 소프트웨어 배포)과 17번 문항(전 직장 ID로 로그인)은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2. 과제 표절 실태 분석 결과

과제표절의 경험 및 방법에 대한 응답을 분석해 본 결과 총 163명 응답자 중 127명(77%)이 과제표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과제표절 방법은 인터넷에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제출하거나 베껴냈다는 응답자가 85명(51.5%)로 가장 많았고, 다른 사람의 과제를 베껴 내거나(66명, 40%) 책이나 인쇄 자료에서 베껴서 제출하는 경우도 57명(34.5%)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28명(17%)의 학생은 유료 사이트에서 리포트를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절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질문한 서술형 문항에서 응답자들은 유료사이트에서 과제를 구입한 후 인터넷 검색한 자료와 도서관에서 대출한 책의 내용 일부 등 3가지 자료를 조합하여 제출하거나, 여러 사람의 과제를 조합하거나 인터넷에 있는 완성된 과제를 몇 가지 조합하는 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험 리포트의 경우 실험 주제에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들을 찾아보면 책이든 인터넷이든 거의 대부분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 교재를 제외한 내용을 베껴서 제출하거나, 웹사이트에 다른 사람이 정리해 놓은 내용을 바탕으로 과제를 작성하거나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학교 컴퓨터실에 다른 사람이 인쇄하고자 받아놓았던 숙제를 다시 받아서 수정하여 제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울러 동료 친구들의 과제를 받아 와서 보고 이해한 후 약간의 수정 후 제출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친구들의 과제를 베끼는 경우도 있었고, 타 대학에서 같은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 과제를 공유하기도 한다고 응답했다. 이외에 다른 수업에서 사용했던 프로젝트를 그대로 가져다가 발표한 경험, 친구가 다른 수업에서 사용했던 프로젝트를 가져다가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IV. 결론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정보윤리의식은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대학 캠퍼스 내의 과제표절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정보윤리의식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식 수준만큼 실천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주된 이유는 도덕적 일탈이 쉬운 인터넷 환경도 있겠지만 표절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이 부재하고 표절에 대한 불이익이 전혀 없는 무관심한 교수·학습 환경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 내에 전반적인 정보윤리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표자료 만들기, 레포트 작성, 논문작성 등에 초점을 맞춘 표절 교육이 필요하며, 교수자들을 대상으로 교수·학습 환경에 초점을 맞춘 연구윤리 교육도 필요하다. 아울러 대학 내에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표절을 범죄라는 의식을 일깨어 주어야 한다.

■ 참고 문헌 ■

- (1) 김석철, 한준탁 “보건계열 대학생의 인터넷 이용 형태와 윤리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동계 학술발표 논문지, 제17권, 제1호, pp.143-147, 2013.
- (2) 이남수 “정보윤리교육이 대학생의 정보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석사학위논문, 2013.